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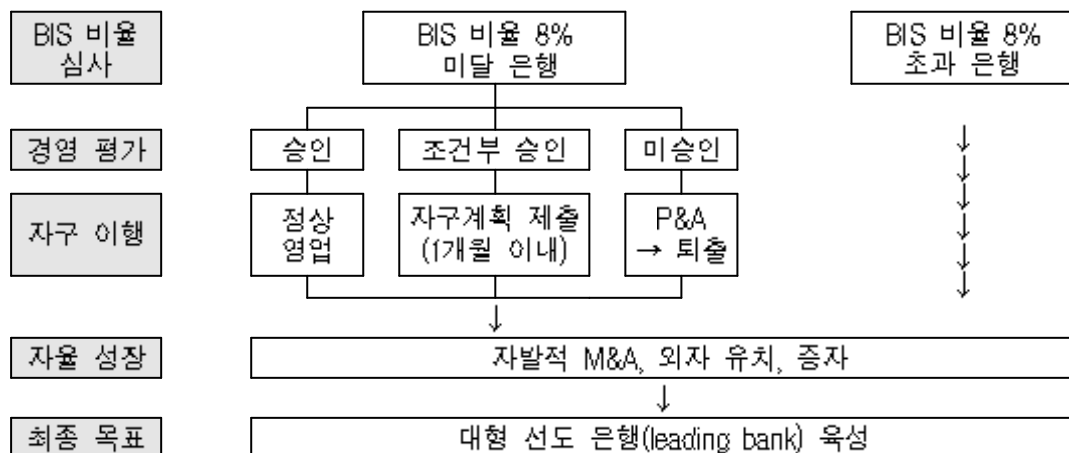
2 부실은행 퇴출의 영향과 평가

- (주요 내용) 금감위가 확정한 부실은행 처리 방침에 따르면, 퇴출 대상으로 확정된 5개 은행은 자산·부채 이전 방식을 통해 우량은행에 인수되고 조건부 승인을 받은 7개 은행은 자구계획 제출을 통해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함
- (은행권 구조 개편)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은행권은 3~4개의 초대형 선도은행, 5개 안팎의 특화은행, 7~8개의 지역전문은행 등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됨
- (평가 및 영향) 금융시장에 만연되었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나 대외신인도 제고에는 미흡함. 특히 퇴출의 인위성과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수 절차에 차질이 예상되며, 정리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임. 기업 측면에서는 자금수요 집중기와 겹쳐 자금난이 예상되는데, 특히 전담은행이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악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적 구조조정과 우량 선도은행 출현에 따라 금융 경색 해소는 물론 금리의 실질적인 인하가 기대됨

□ 주요 내용

- (은행 구조조정 본격화) 금감위는 12개 부실은행(97년말 현재 BIS 비율 8% 미달 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서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은행 처리 방침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은행 구조조정에 착수함

<은행 구조조정 과정과 결과>



- (미승인 5개 은행 퇴출) 경영 평가 결과 승인을 받지 못한 5개 은행이 퇴출 대상으로 확정되어, 자산·부채 이전 방식(P&A)을 통해 우량은행에 인수됨

- 대상 은행(인수 은행): 대동(국민), 동남(주택), 동화(신한) 등 후발시중은행 3곳과 경기(한미), 충청(하나) 등 지방은행 2곳
- 인수 방식 및 인수은행 지원: 인수은행이 자산·부채 이전(P&A)을 통해 부실은행의 부채와 우량자산만을 인수. 우량은행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자산은 성업공사에서 인수하며, 자산 인수로 BIS 비율이 하락할 경우 증자도 정부에서 지원함. 또한 인수은행의 자체 부실채권도 성업공사에 매각 가능
- (조건부 승인 7개 은행 강도 높은 자구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은 7개 은행은 1개월 이내에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금감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대상은행: 외환, 조흥, 상업, 한일, 흥북, 평화, 강원은행
 - 외환은행을 제외한 6개 은행은 감량 경영, 경영진 교체, 감자, 합병계획 등을 포함한 자구이행계획서를 1개월 이내에 금감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승인 받았더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합병 명령이나 자산·부채 이전 명령을 받아 퇴출당하게 됨
- (후속 조치) 부실은행 퇴출과 관련하여 금융시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 기업 대출 연장 등 후속 조치를 취함
 - 퇴출은행의 업무가 정지되는 즉시 예금은 우량은행 예금으로 바뀌어 원리금이 최대한 보장되며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게 됨
 - 대출도 우량은행에 승계되어 대출금리와 만기 등 조건도 당초 계약대로 그대로 유지되며, 대출금 중도 상환 요구를 못하도록 함
 - 기업 거래와 관련된 당좌대출 등의 거래도 계속되고, 신용장 지급보증·개설 업무도 우량은행이 대행하며, 부실은행 거래 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대출금(올 연말까지 만기도래분 약 84조 원)의 만기를 연장해주도록 함

□ 부실은행 퇴출에 따른 은행권 구조 개편

- (은행권 재편) 향후 은행들은 3~4개의 초대형은행, 5개 안팎의 특화은행, 7~8개의 지역전문은행 등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됨
- (우량선도은행 출현) 인수은행들은 퇴출은행의 우량자산 인수와 함께 향후 6개월 간 발생하는 부실자산도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 코메르츠은행과 합작을

1) 자산·부채 이전(P&A : Purchase & Assumption) : 특정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이 과정에서 인수은행은 피인수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선별적으로 인수할 수 있으며, 피인수은행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는 것이 M&A와의 차이점

- 추진중인 외환은행과 함께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함
- 선발대형은행이었던 조흥, 상업, 한일은행은 금감위로부터 상호간 합병이나 외국은행과의 합작을 명령받아 이중 1~2개가 대형선도은행으로 도약할 것임
 - (특화 및 지역전문은행) 합병·외자유치에 실패한 시중은행 등 우량선도은행 경쟁에서 탈락한 은행들은 대대적인 감량 경영과 함께 평화, 충북은행과 같이 국제업무나 대기업 여신업무를 포기하고 중소형 특화은행으로 전환하거나 특정 지역전문은행으로 살아남는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됨

□ 평가 및 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인 평가)

- 지난번 55개 대기업 부실계열사와 함께 5개 부실은행이 퇴출 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오던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본격 가시화됨
- 아울러 나머지 7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2차 부실은행 정리, 제 2 금융권 구조조정 등이 예정되어 있어 금융산업의 구조 개편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됨
- 이와 함께 그 동안 금융시장에 만연되었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됨으로써 금융시장 경색이 완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임

- (부정적인 평가)

- 평가 대상 은행의 부실화 정도에 비해 퇴출 대상 은행이 5개로 국한되어 있어 금융시장 경색을 해소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에는 미흡
- 특히 정부의 인위적인 퇴출 및 인수은행 선정으로 선정 기준을 둘러싼 대상은행 경영진 및 노조, 인수은행 주주들의 반발에 따라 인수 절차에 차질 예상
- 또한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인해 부실은행 정리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났으며, 이러한 방식이 향후 제 2금융권의 부실 정리 과정에도 적용될 경우 추가적인 채원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기업 금융에 미치는 영향)

- 정부의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자금수요가 집중되어있는 월말에 부실은행 퇴출이 겹쳐 일시적인 금융시장의 혼란과 기업들의 자금난이 예상됨
- 특히 중소기업 전담은행이 모두 퇴출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계약 이전과정에서 대출이 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악화될 전망이다

- 한편 부실은행 퇴출의 강도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여 금융정책의 해소도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금융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우량 선도은행의 출현에 따라 금융정책의 해소는 물론 자금조달금리의 실질적인 인하가 기대됨

(김범구 bkkim@hri.co.kr ☎724-4016)

<부표-1> 인수은행과 퇴출은행의 주요 경영 지표(97년말 현재)

(단위: 억 원, 명, 개, %)

구분	국민	대동	주택	동남	신한	동화	한미	경기	하나	충청
총자산	543,998	77,152	469,529	100,555	435,847	129,682	164,341	88,935	229,441	48,291
대출	242,856	33,711	257,464	34,195	201,507	52,406	62,196	44,966	71,881	22,416
수신	410,076	49,454	333,529	68,301	285,393	102,851	111,411	56,506	168,213	31,506
납입자본	5,232	2,000	3,212	2,000	6,160	4,000	2,150	2,002	2,335	1,185
자기자본	19,302	1,453	12,719	2,106	18,563	3,641	4,612	3,443	6,936	2,308
임직원수	12,746	1,753	11,021	1,694	4,731	1,856	2,141	2,278	1,704	1,467
점포수	513	108	499	119	226	137	123	194	110	112
무수익여신	12,562	7,250	8,449	3,717	14,763	7,990	4,161	7,658	3,227	6,251
(비율)	(4.5)	(14.7)	(2.8)	(7.3)	(5.6)	(11.1)	(4.3)	(12.3)	(3.1)	(19.3)
BIS 비율	9.78	2.98	10.29	4.54	10.29	5.34	8.57	6.69	9.29	7.05
ROA	0.31	-1.67	0.36	-0.62	0.19	-1.51	-0.38	-1.75	0.39	-2.88
ROE	4.11	-32.98	3.59	-11.88	2.39	-24.63	-7.26	-24.76	5.85	-29.93

주: 무수익여신, 점포수는 98년 3월말, 직원수는 4월말 현재
 자료: 한국경제신문(1998.6.29)

<부표-2> 퇴출은행 인수 후 은행별 총자산 및 자기자본 순위(97년말잔 기준)

(단위: 억 원)

순위	총자산		자기자본	
	은행명	금액	은행명	금액
1	외환	623,188	신한(동화)	22,204
2	국민(대동)	621,150	국민(대동)	21,373
3	주택(동남)	570,084	외환	19,920
4	신한(동화)	565,529	조흥	15,750
5	조흥	556,002	한일	15,406
6	한일	538,536	주택(동남)	14,825
7	상업	485,524	상업	13,985
8	제일	416,949	하나(충청)	9,244
9	서울	358,213	한미(경기)	8,055
10	하나(충청)	353,172	대구	7,363
11	한미(경기)	253,276	서울	7,014
12	보람	179,008	보람	4,582
13	대구	136,785	경남	4,479
14	부산	123,731	부산	4,382
15	평화	83,586	광주	3,503
16	경남	79,598	제일	2,340
17	광주	77,462	평화	2,203
18	강원	38,685	전북	2,157
19	전북	32,705	충북	1,137
20	충북	31,391	강원	1,105
21	제주	16,397	제주	998

자료: 한국경제신문(1998.6.29)